

조계종사태 현장스케치

한숨-비판 속 몸싸움 이틀

○... 승려대회를 마친 정화개혁회의측은 곧바로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 이 과정에서 총무원측에서 고용한 경호원들과 20분간 밀고 밀리는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월탄스님과 현호스님 등 정화개혁회의 집행부가 청사 문 앞에 이르러 두 손을 들어올리자 주위에 있던 불자들은 박수를 치는가 하면,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불자들이 있었다.

몸싸움은 이틀날에도 이어졌다.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가기려는 선관위원들을 정화개혁회의측에서 저지하려 또 몸싸움이 벌어져 조계사 경내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6시간 동안 중환수호법회

○... 이에 앞서 월주스님측 주최로 총무원 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개혁중환 수호 정진대법회'에는 전북불교회관 금산사 영화사 신도 3백여명이 참석.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승려대회가 끝날 때까지 찬불가와 트롯가요 등을 부르며 마라톤 집회를 가졌다.

확인들, 사태 불개입 천명

○... 15개 강원 확인으로 구성된 전통강원연합은 10일 "중단의 정지에 확인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발표.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중앙승가대 확인들을 제외하고는 승려대회 등에 참석치 않기로 예정된 다른 모습도 보였다.

사태 지켜보다 끝내 울음

○... 총무원 청사 진입과정에서 일어난 총물로 청사 앞마당에는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가 널려 있었고, 서로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는 등 전경태를 방백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불자는 "불교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며 울음을 터뜨려 주위의 불자들을 숙연케 했다.

또다른 불자들은 조계사 대웅전을 가운데 두고 승려대회와 중환중환 수호 결의법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계종이 쇠락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토로.

취해진 60여명도 밤새워

○... 정화개혁회의측 호법스님들은 총무원 청사 앞마당 3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20여명씩 모여 앉아 일주 총무원장측의 진입에 대비. 새벽 1시경 진입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나 돌아 한때 긴장된 분위기. 취해진 60여명도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 전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밤을 꼬박 새웠다.

문답한 법당 앞 수능기도



○... 승려대회 관계로 조계사 대웅전이 일시 폐쇄된 가운데서도 자녀의 대입합격을 바라는 한 어머니가 폐쇄된 안내문이 붙여진 법당 밖에서 기도를 올려 뜨거운 모정불심을 보여줬다. 정화개혁회의측이 총무원 청사를 접수하고 격렬했던 시간이 지나가자 80여명의 불자들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기도도 열중해 밖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재가종무원들 대책반 구성

○... 비상대책반을 구성한 재가종무원들은 12일 오전 "불법적으로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스님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중환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화개혁회의는 이날 오전 중무원들의 출근을 명령하는 공고문을 조계사 일대에 게시.

경찰, 내부해결 기대

○... 11일 오전 8시30분 김영화 종로경찰서장은 총무원측과 승려대회준비위원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7조를 근거로 물리적 충돌이나 기물파손의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또 12일 오전 10시 45분경 월주스님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서도 "중단 문제가 중환 내부에서 해결하길 바란다"며 응하지 않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가족의 정 나누는 보살행

신부전증 덕기스님 속가누님 신장받아 美 L대원사 신도 여동생에 장기기증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하는 아들과 아내가 속출하는 등 천문인 가족윤리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기증한 불자들이 있어 따뜻한 미담이 되고 있다.

가족간의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한 화제의 주인공은 충북 영동군 심천면 단천리에 사는 이광희(56) 보살과 미국 LA에 거주하는 상업인 정성현(51)씨.

농촌에서 홀로 사는 이광희 보살은 지난 4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어릴 적에 출가한 남동생 덕기스님(시흥 법통사 주지)을 위해 자신의 신장을 공양했다. 3년전 갑자기 찾아 온 신부전증으로 병고에 시달리던 스님에게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승보를



공양한 것. 특히 덕기스님과 그의 스승인 우룡(울산 화성선원 조실)스님, 사형인 덕민(前승광사 강주)스님과의 사형·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은 같은 문중끼리도 반목하고 있는 종단의 현실과 대비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우룡스님은 제자의 수술비를 마련해준 것은 물론 매달 초사찰을 순례하며 덕기스님이 주종으로 있는 법통사 신도들을 위해 법문을, 덕민스님은 수시로 청년회 불자들을 위해 경전을 강의하고 있다. 또 덕기스님의 사자인 현역스님 불원전리 송광사 강원을 오가며 스승인 덕기스님을 간병했다.

이런 사실을 안 신도 3명도 선뜻 스님에게 장기기증을 희망했다. 하지만 유전자 및 혈액형이 맞지 않아 마지막으로 속가의 누나가 나서게 된 것.

한편 동생을 살리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귀국한 경성현씨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3년6개월째 혈액투석 중이던 여동생 영현(39)씨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통해 생명을 나누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생업을 일시 접어둔 재 자신의 장기를 나눈 보살행이 쌓일만 날수록 더욱 훈훈하게 됐다. 그는 미국 LA 대원사 신도로서故 서경보 (前일부선교종 중직)스님의 방미 때마다 집에서 모실 정도로 불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장기기증을 주선한 생명나눔실천회 박원순 사무처장은 "종단내부로 불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가족을 살린 것은 불교의 자비정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회향돼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뉴스 & 뉴스

전국법사연합회 간담회

전국법사연합회는 11일 송현클럽에서 간담회를 열고, 99년 6월 이전에 '21세기 불교종교와 법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국법사대회를 개최하고, 국제법사대회를 99년말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대·경 생명나눔회 2돌

생명나눔실천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심업)는 7일 대구 불광사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자광(문경 김용사 주지)스님의 축하법어, 통사 주지 성덕스님의 치사,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북, 고구려 불상·불감 발굴

북한 중앙통신은 최근 평양에서 53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시대의 불상과 불감(佛龕)을 발굴했다고 1일 보도했다.

발굴된 유물들은 가단과 당실, 불상인데 당실의 뒷벽에는 불상이 고구려의 '낙락동사'라는 절에서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5행 47자의 옛 글이 새겨져 있어 제작년도를 539년으로 보고 있다고 중앙통신에서는 밝히고 있다.

삼존불과 당실은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져 당실은 3단 형태로 난간을 둘러쳐 있고 맨 뒷단 바닥에 불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절 모양의 당실은 전형적인 고구려 건축양식인 우진각지붕 모양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조불련 임원진 일제히 개명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임원진이 일제히 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7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산스님(경북합천 미추분부 고운)과 지현정사(경북합천 삼일부회)에 의해 확인됐다.

임원진 개명은 대외적으로 조불련 중앙위원회 임원진 개명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로 전해지고 있다.

개명한 조불련 임원진은 위원장 박태호-박태화, 부위원장 황병대-황병준, 서기장 심상현-심상진, 남쪽담당 지도원 류인수-유인명 등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nia.com)

박노해씨 초청 특별법회

정도회(회장 법륜)는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흥재동 정도법당(379-1650)에서 박노해 시인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박씨는 이날 '미래문명·환경·수행'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초청강연은 박씨가 경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때 정도회에서 '장토'지와 불서를 보내준 데 대한 답례의 형식으로 마련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조계종 복지사업 '차질'

내내어파 복지센터·복지관 수탁 실패

조계종이 최근 잇달아 종권 분쟁으로 불교사회복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종단 내부의 빠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최근 방송·신문사의 '봉은사 주지 경발전' 보도로 서울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수탁에 실패한 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종단내부의 보도 여파로 서울시 중구동 중구복지관 수탁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봉은사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불교계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교계복지관 김장김치 서비스

저소득가정 월동준비 도와

어느 해보다 몸과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교계 복지관 및 사회봉사 단체들이 대대적인 김장김치 봉사에 나서고 있다.

청담·구로·종리·옥수·문경복지관 등 교계 복지관들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 가구 등 불우한 이웃에 김장김치를 나눠줄 계획이다. 김장김치를 보시할 대상 가구도 예년보다 늘려 잡고 있다.

서울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달 9~11일 중 1백50세대에 '제5회 우리이웃 김장담궈드리기' 행사를, 문경 모전사회복지관은 지

난 5일부터 한 달간 7백50세대에 약 5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보시 하는 '김장 5포기 더 담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문경사회복지관 등 대부분의 교계 복지관이 김장김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16, 17일 민락동 귀락마을 배추밭 현장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김장봉사를 실시, 배추 5백 포기, 무 2백여개를 나눠주었다.

김재경 기자

11일 오후 4시 15분, 조계사 대웅전 뒤에서 정화개혁회의의 총무원 청사 진입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기자를 비롯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이 98년인지 99년인지 어리둥절했다. 4년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쇠창살을 뜯어내고 건물 2층으로 사다리가 놓여졌다. 건물 안에서는 분말소화기가 뿌려지고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인원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접한 대부분 일반인들의 반응은 "또 스님들이 왜 저래?"이고 불자들의 첫마디는 "이거 불교신도 엄청 멀어지겠군"이란 우려다. 해방 후 50년 불교현대사를 얼룩지게 한 것이 바로 종권분규로 인한 폭력사태가 아니던가.

그러나 무슨 건물값을 할 것이며 누구 탓을 할 것인가, 의식의 문제인 것이고 부처님재자로서의 본분과 처신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사태는 극히 일부의 일이다. 전국의 선방과 도굴에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자며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다. 그러나 무슨 건물값을 할 것이며 누구 탓을 할 것인가, 의식의 문제인 것이고 부처님재자로서의 본분과 처신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사태는 극히 일부의 일이다. 전국의 선방과 도굴에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자며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다. 그러나 무슨 건물값을 할 것이며 누구 탓을 할 것인가, 의식의 문제인 것이고 부처님재자로서의 본분과 처신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사태는 극히 일부의 일이다. 전국의 선방과 도굴에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자며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이경숙 (취재2부 부장)

때문에 그동안 종단에 그렇게 싸움이 많았는데 빨리 부서버려야 해." 예로부터 불교계에는 총무원 건물이 조계사대웅전보다 높게 지어져 종단에 분규가 계속됐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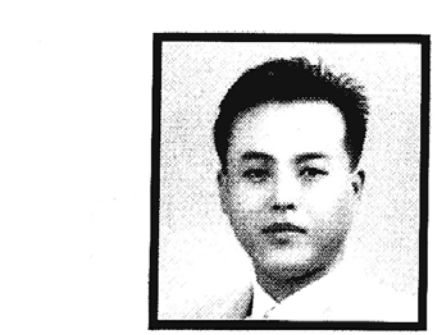
4년전과 똑같은 상황

사람이 많았다. "아무래도 저 총무원 건물이 문제야. 저것 때문에 그동안 종단에 그렇게 싸움이 많았는데 빨리 부서버려야 해." 예로부터 불교계에는 총무원 건물이 조계사대웅전보다 높게 지어져 종단에 분규가 계속됐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

법형제, 자매님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름을 믿 합니다. IMF의 그늘을 헤치고, 21세기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후원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법형제 心 勇 회원 法 慧 元 永 一 합장

■ 연락처 : 02)942-6950(자택) / 02)778-7062(사무실) ■ 호 줄 : 012)1873-5160 ■ FAX : 02)771-7334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형) 테크레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이 향비를 신갈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성분의 성분이 신갈원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항비는 자연형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기적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이가 염미의 맛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갈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정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색현상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대 뒷면이 검고 딱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려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노나 감당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